

'경험은 없어도 의견은 있는데...' 아들과 자신의 의견이 다르면 웃으면서 핀잔주는 김창열 부
부 |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30 회
조회수 474,763회 2022. 5. 6. '경험은 없어도 의견은 있는데...' ...

3.4천

싫어요

Download

720

공유

오프라인 저장

클립

저장

채널A 캔버스

구독자 215만명

댓글

670

nangyu kan

부모가 미성숙하니깐 자식이 먼저 성숙해버렸네

댓글 670개

안39

댓글 추가...

뿌

뿌

10일 전

학원조교 오래해보면서 느낀 것.. 어른들은 예의바르고 말 잘듣고 의젓하고 차분한 애들이 잘
자란 애들이라고 생각하고 예뻐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감정이나 많은 것들이 억눌린게 보여서
마음이 아팠음.. 나도 예의 바르고 착하다고 어른들한테 예쁨 받으면서 자랐지만 사실 부모님
한테 솔직하게 이야기저얘기 잘 꺼내지도 못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뭐만 해도 혼날까봐 마음
조이고 친구들이 너네 부모님 왜이렇게 엄하시냐.. 한번은 그런걸 뚫고 나와봐야한다고 진심
으로 조언해줘도 한번도 실천해볼 생각을 못했음 왜냐면 무섭고 그 이후에 나에게 올 결과가
더 골치아플 것 같으니까. 아직은 학생이고 청소년이니까 통제하고 억압한다고 하겠지만, 그
런 부모는 자식이 성인이 되어도 거의 변하지 않음. 너가 잘못될까봐, 무슨 일이 날까봐 그러
는거라고 하고 그것 또한 진심이겠지만 그러면 자식은 평생 누군가의 통제 안에서 살고 눈치

를 보는, 부모랑 사는게 괴롭지만 자립할 용기도 안나는 사람이 됨. 오히려 자기 할 말 당당하게 하고 매번 말을 잘 듣진 않아도 솔직한 애들이 더 건강해보이더라. 그런 애들이 스트레스에 취약하지도 않고 화난다고 평소와 다르게 확 돌아버리는 모습도 없고. 그래서 그런 애들이 참 부러웠다

1.5천

younghee hong

younghee hong

8일 전

오은영박사님 진짜 짱. 쪽주면서 웃는거 날라리 요법 인데 부모가 그럼 안되죠..

309

브라보라이프

브라보라이프

9일 전(수정됨)

아들이 부모가 방법을 몰라서 공감을 많이 못받고 자랐음에도 ...참 의젓하고 마음이 깊게 컸네요. 훌륭합니다. 앞으로 부모가 방법을 알았으니 더 잘 지낼수 있겠지요..

496

얼한죽라°

얼한죽라°

10일 전

하... 오은영 박사님 말씀하시는거 참 든든하다...

535

최맷

최맷

10일 전

지금은 의젓해보여도 분명 결핍된부분 나중에 터집니다 부디 부모님 두분 각성하시길

1.3천

생각대로

생각대로

10일 전

본인들이 잘 키웠다고 착각하고 사는 부모가 얼마나 많을까 이전 직장 사장님은 진짜 말로
빛을 지는 분인데 아들 인성이 너무 좋았음.

나중에 아들한테 너는 어떻게 아버지를 하나도 닮지 않았니 라고 물으니 어려서 부터 아버지
의 행동과 말이 싫었고 주변에서 아버지를 뒤에서 험담하는 사람들을 보고 자기는 아버지의
반대로만 살았다고 하더라.

1.3천

멋진 싱글맘

멋진 싱글맘

13일 전

두부부가 잘하신것중에 하나는 아들 진짜 잘 낳으신것. 아들 너무멋져요.

795

그루의하루

그루의하루

10일 전

오은영박사님이 저렇게 백날 말 해도 저렇게 몇십년 산 사람들이라 절대 안바뀔거임

815

너는할수있어

너는할수있어

10일 전

저건 야유지..웃음이 아니라...

어쩔...부부는 잘 통해서 좋겠네...

569

nangyu kan

nangyu kan

13일 전

부모가 미성숙하니깐 자식이 먼저 성숙해버렸네

2.9천

tara lee

tara lee

9일 전

외동자녀로서 부모님끼리 한 편이 되고 내가 혼자인..1대 2인 상황을 많이 겪어봤는데 그럼 진짜 집에서 입을 안 열게 돼요..ㅋㅋㅋㅋ두 분 부모님께서 화를 내거나 때리는게 아니라도 평소 소통방식이 아이에게 어떻게 느껴지는지는 꼭 인지하시면 좋겠네요ㅠㅠ

142

Sophie Kim

Sophie Kim

9일 전

와 진짜 오박사님 사이다 발언에 계속 보게 되네요 다 힘내요 남은 인생이 더 길어요

153

SanDa

SanDa

8일 전

저 엄마 표정이 참 썰하다.. 저런부류는 소통의 의지를 상실하게 만든다.

242

Grace Ji

Grace Ji

12일 전

김창열 부부가 했던 잘못들이 사실 나 자신도 부지불식간에 아이나 남편에게 해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귀담아 듣기, 경험이 없어도 의견 존중하기, 정당성 인정하기. 모두 명심하겠습니다.

529

김라이트

김라이트

10일 전

엄청난 말씀이네요 도덕적 상위레벨 명제를 던지고 아무말도 못하게 만들어서 무기력을 학습 시키죠 ..그리고 감정억압. 비웃음. 아빠에게 너는 친구도없냐고 비난을 초4때 들었는데 꼭 그 래야했을까 ㅠ

579

Dmode Winter

Dmode Winter

10일 전

최대한 빨리 독립하세요 독립해서 고생하더라도 그게 더 좋아요 피가되고 살이됩니다. 저희 엄마는 저거보다 100배 심했는데 일찍 독립한편인데 더 일찍할걸 후회해요. 거리를 두며 지내 야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꼭 거리를 두세요.

623

ys bae

ys bae

8일 전

박사님 말씀 듣다보니 박수가 절로 나오네 ~~

109

굳굳

굳굳

10일 전

엄마는 오박사님의 지적에도 표정의 변화가 전혀 없네요..슬쩍 웃는거 말고는 아들에게 미안 함이나 당황함이 안드러나요.

488

박소영

박소영

8일 전

저도 감정억압형 부모를 두어서인지 주환군의 마음에 많이 공감이 됩니다. 감정억압이 계속되 다보면 자기자존감도 낮아지고 자신이 원하는 것도 알지 못하게 되고 자기표현도 못하고 안에

분노가 쌓이게 되죠. 그 분노가 자기한테 향하면 우울증이 되는 거고요. 부모님에 비해 굉장히 섬세하고 공감을 잘하는 좋은 면을 가진 아드님을 두셨는데 지금이라도 얼마나 소중한 내 자식인지 깨닫고 그 마음을 헤아리는 노력을 지금부터라도 하셨으면 좋겠네요.

주환군이 참 장점이 많고 배려있는 좋은 사람 같아요. 부모와 감정적으로 분리해서 자신의 장점을 자신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자기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240

치킨이 아니면꺼져

치킨이 아니면꺼져

6일 전

이 영상은 5분짜리지만 본영상은 1시간 넘어요. 진짜 많이 자른거임..결론적으로 다들 자기모습 돌아보고 울고 난리였어요..아이까지 다..저도 침에 보고 욕할뻔 하다가 마지막까지보고 아..김창열이 어떤사람이든 아이한테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부모구나 했네요..게다가 아이는 가족 정말 사랑하던데 여기 댓글보면 또 상처받겠네요...본방보시고 욕은 속으로만 했음해요..아이가 다 보던데..자기부모님 욕먹게 하는거 아닌가 해서 엄청 걱정하는거 다 보이던데..여기댓글보니까 걱정이네요..에휴..다들 본인들 부모님 투영하고 화나겠지만 다른부모구 다른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오픈거는거 쉽지 않은데 아이위해서 노력하고 변하려고 나온거니 욕보다 응원했음 좋겠어요..ㅏㅏ

31

Lily@

Lily@

9일 전

주환군..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독립시기에 최대한 빠르게 독립해서 사는게 제일 좋은 방법 같아요..부모에게 더 배우고 얻을게 방송 이후에도 없어 보여서...

220

운동이좋아

운동이좋아

9일 전

우리 어머니, 단 한 번도 어린 시절 나의 감정을 받아주신 적이 없음. 심리학을 전공하면서 나름 어머니에 대해 많이 이해하게 됐고, 어머니를 용서하게 됐고, 지금은 우리 둘 사이도 매우 좋아졌으나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엄마에 대한 분노가 있음.

100

A

A

10일 전(수정됨)

꼭 일찍 독립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더 더 심해집니다 저런부모는. 그리고 자식이 잘 안되게 합니다. 본인 앞길 하는것마다 태클걸고 나이들면 이제 감정적으로 불쌍한척 하기시작하면서 더더 물고늘어져요. 미성숙한 부부는 손떼면 둘이 알아서 잘 살게되어있습니다.

453

Yuri Hong

Yuri Hong

9일 전

주환이 엄마는 표정이 다 말해준다. 다들 느끼는건 똑같음

149

jy y

jy y

9일 전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은 너무 애들을 애취급함.. 아무리 어려워도 자신의 의사나 의견을 표출하면 존중해줘야함.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껴야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살 수 있음. 안타깝...

157

박레지나

박레지나

9일 전

어머니 듣는 태도가 여기서도 눈에 띄네요. 카메라도 있고 오은영 박사 앞이라 최대한 조심했을텐데도 느껴져요.

283

호롤로로

호롤로로

10일 전

창열 주제에 좋은아들 두었네... 고생한다 아들이

235

hannah

hannah

10일 전

저래 의젓하고 성숙해보여도

또래 사이에서도 위축되어 자기 주장을 잘 못할 거고 그게 사회생활로 이어지면 스트레스가
어마어마 할 것임.

잘ќ다느니 의젓해서 멋지다느니

지금의 성격을 강요하는 무식한 칭찬 하지 말고

부모에게는 변화를 요구하고

아이에게는 지지를 보내야 함.

343

김지윤

김지윤

9일 전

이전에 사건들과 행동들이 이해가 되네요.. 이기심

아드님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었군요

많은 노력하시길 응원합니다

74

Lee Gio

Lee Gio

10일 전

한 마디로 꼰대다... 는 말이네ㅋㅋㅋㅋ 젊은 사람이 의견 말하면 경험치 들이밀면서 묵살하기

382

안녕뚜뚜

안녕뚜뚜

9일 전

부모자식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에서 대화할때 상대방이 이미 다 안다는 듯이 반응하면 정말 대화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나이가 어리든 적든 내가 알고 있는 정보든 아니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고 공감해주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는걸 다시금 깨닫습니다~

168

구름이

구름이

2일 전

눈물나 아들 진짜 대견해... ㅌㅌㅌㅌㅌ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훌훌 털어버리시길!!!

4

달루

달루

9일 전

풀로 봤는데 부모라기보다 중고딩 때 꼽주던 일진들 말투 같았음 둘이 죽이 잘 맞아서 애 하나 사이에 두고 노는 느낌 오박사님이 진단하는 와중에도 별로 귀담아 듣거나 인정하는 것 같지 않음

105

뽀뽀

뽀뽀

7일 전

와..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아서 소름.. 제가 왜 입을 다물고 부모님 앞에만 서면 말이 안 나오고 마음을 달았었던 건지 이거 보고 알았어요 똑같아요 진짜.. 그렇다고 부모님을 미워할 수도 없어요 아빠의 상처 엄마의 상처 다 아니까 그래서 너 정말 어른스럽구나 이 소리만 듣고 살았고 아 그냥 저는 부모님한테 받은 게 없는데 억울하다 이렇게만 속으로 생각했는데 공감 이 많이 갔네요..

58

조이맘

조이맘

9일 전

좋은 부모님 되는건 힘든것 같아요~ 오은영 박사님 같이 좋으신 멘토 있으셔서 너무 힘이 납

니다~^^

26

신문숙

신문숙

10일 전

꾸준히 보고 배우면 부족한 저도 깨달아지던데요. 이 부부도 점점 성숙한 부모가 되실거라 믿어요.

16

초코

초코

7일 전

오은영 박사님 진짜 대단하세요.~

볼 때마다 감탄!

8

hannah

hannah

10일 전(수정됨)

부모가 무지해서 저러는 거긴 한데

어쨌든 피해는 오롯이 자식만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

화가 난다

무식한 건 죄야

282

이연정

이연정

9일 전

와.. 역시 정확하게 포인트 집어서 딱 말해주시네!

56

너이름이

너이름이

10일 전

나도 저런 가정에서 자라서 아는데

우리 부모님도 막 심하진 않았지만 내가 말하는거에 있어서 본인이랑 다른 생각을 말하면 일단 노부터 하고 은근 니가 틀렸다는 식으로 말하는게 한번..두번 계속 되니까 결국 내 의견은 말 안하게 되더라;;; 또 나아가서 뭘 하려고 하면 부모 의견을 꼭 묻게 됨 아니면 불안해서 그리고 대학생활 ..사회생활에서 결국 내 의견은 말하지 못하는 예쓰맨이 됨; 부모는 내가 자식이니 그냥 툭툭 한마디 하는거겠지만 자식은 점점 부모가 싫어짐 대화하고 싶어지지도 않고 아이가 어느정도 사고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때부터 아이 의견 귀기울여주고 수긍해주는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봄 또 설령 그게 잘못된 판단이었을지라도 거기서 배우는게 있으니 제발 부모는 본인자식을 소유물이란 생각보단 독립된 하나의 객체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

363

황혜영

황혜영

10일 전

김창열씨가 그동안 여러사고와 주변인들로부터 인성에 문제있음을

들어온 바람 아빠가 여러 문제의 원인이 아닐까싶다.

공감능력부재~다혈질인아빠 아들입장에선 별로 존경이 안되는점 ~아쉽다

이가정에서 간접경험으로 이미 어른에 준하는 판단력을 가진듯 보인다

343

silver미

silver미

8일 전

오은영 박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박사님 영상보면서 많이배웁니다☐ ♀☐

34

어쩔티비

어쩔티비

5일 전

아들님 빨리 독립하세요. 집에서 스트레스 받고 살지 마시고 최대한 빨리요. 버릇은 잘 안고쳐져요. 방송에 나와서 고치는척 한다해도 시간지나면 더 심해집니다. 최대한 빨리 독립하시고 손절 치세요.

4

zero

zero

10일 전(수정됨)

인성은 타고나는것

기질도...

주환이가 너무 착하고 바르게 잘자랐어요

130

HW S

HW S

13일 전

주환아ㅍㅍ 엄빠보다 주환이가 더 어른이네 어찌면 좋냐. 맘이 아프다.

258

My youth

My youth

10일 전

와 주환이 애기때 방송으로 봤는데 저렇게 많이 자랐구나 지금처럼 그대로 독립심 길러서 잘 지내 주환아!!! 화이팅

122

친절한신쌤

친절한신쌤

9일 전

주환군 잘 성장해줘서 고마워요.

방송에 나와 속상한 댓글들로 상처받을까 걱정되지만 ㅍㅍㅍ

앞으로 더 행복해질 주환군과 창렬씨가족 응원할게요.

80

썩썩

썩썩

3일 전(수정됨)

와 진짜미치겠다

내가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이야기하면 정말 미칠듯이 답답한데, 막상 남들에게 내 부모와의 소통이 이상하단걸 얘기하려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몰랐다.

은근한 무시와 경험치로 찍어내리기 공감안해주기 등등등....

우리 부모님은 돈도 잘벌고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내가 함부로 대들수도 없었고 어려서 무조건 부모님 말이 맞는건가..... 싶었지만

미칠듯이 외로웠다.

오은영 쌤이 대신 이 부모님한테 팩트폭력? 해주는데 꼭 저 아드님이 나고 쌤이 우리부모님을 대신 혼내주는 것 같다.

내나이 30인데 30년 묵은 갈증이 화악 내려가네.

4

흰구름몽치

흰구름몽치

9일 전

오박사님 덕분에... 이 프로그램 덕분에... 저도 많이 배우고 반성합니다. 감사합니다.

32

석이

석이

6일 전

진짜 날카롭다. 평소에 그런 경험들을 많이하고 나도 많이 주기도 하지만 말로 표현은 못했는데 물론 지금도 표현은 못하겠지만 그 묘한 공기를 느낄때마다 생각날거 같아요

12

로민

로민

5일 전

공감능력도 지능이라는것

4

릿

릿

9일 전

우리 엄마아빠랑 너무 똑같아서 공감된다.. 감정 억눌리고 자라서인지 성인된 지금도 내마음 표현하는게 너무 어색하고 맨날 혼자 속앓이함..

84

권세하

권세하

10일 전

정신연령이 서로 잘 맞는 부부 사이에 정상적으로 커버린 아들같군요. 자기들 수준으로 바라 보니 아들이 아직도 철없는 아기인줄 알죠..

328

사랑빛

사랑빛

8일 전(수정됨)

나의 부모님이랑 상당히 비슷하네요. 성인이 되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저도 잘못이 있겠지만 부모님이랑 비슷한 상황만 일어나도 상당히 우울하고 죽을 거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커서는 감정적으로나 지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자신의 건강한 자존감을 키우는데 도움이 됩니다. 부모는 쉽게 변하지 않더라고요...

116

Kong King

Kong King

11일 전

좋은 부모 되는 거 쉽지 않네요

172

피아노의 기억

피아노의 기억

6일 전

너무 예쁘고 멋지게 잘 컸다.. 세상에...

밥안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부모도 처음이라 잘 몰라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아들에게 잘해주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

18

귀염뽀작 뽀자기 찬또 편애 사심편집

귀염뽀작 뽀자기 찬또 편애 사심편집

10일 전(수정됨)

그치 경험은 없어도 의견은 있지. 소통이 쉬운건 아님... 열심히 한다고해도 ~ 생각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가 너무 잘 컸다...

96

붐업이세요

붐업이세요

10일 전

엄마 표정이... 한 소리 들었다고 자존심 상해하는 것 같네요;

128

My etoile Mika

My etoile Mika

9일 전(수정됨)

그런데 저런 부모님들 은근히 많습니다. 저분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도 상담받으시러 나오신것 자체가 앞으로 희망이 있어보입니다. 아니였음 아이는 성인 되어 독립할때까지만 참고 버티다가 부모를 안보겠다 할수도 있었을 것 같네요.

저는 90년대 학창시절 보냈었는데 채널 돌리다가 EBS에 부모상담 관련프로만 나와도 부모님 께서 불같이 화를 내시며 TV를 꺼버리셨었죠.ㅏㅏ 그런데 웃긴것은 손주들을 위해 오은영박사님 프로는 즐겨보십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아들이라 어려워하셔서 말 못하시고 무려 초등학교 교사인 언니에게만 그렇게하면 안된다고 무한 잔소리하십니다. 대부분 박사님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시고 하시는 말씀이라 못들은 체 하지만요.

84

you love

you love

9일 전

오은영박사님이 저렇게 해결책을 제시 해주셔도 본인들이 그것을 내면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냐
에 따라 다른데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존심때문에 기분이상하는것이 먼저라면 죽을때까지 못
고쳐요 저희 부모님 보는것 같네요 성인되면 독립하고 거리를 두는것이 좋더라고요

65

샤샤삭

샤샤삭

8일 전

웃으면서 핀잔을주다니;;;되게 소름돋는다